

전북

김완주 전북도지사 새해 청사진

“100개 기업 유치 6000개 일자리 창출”

“2011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서민경제가 안정되도록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 서민이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돌아서고, 전북도가 최우수 행정을 실현하는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올해 식품산업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식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한식세계화 선도에 나선다.

새만금 中특구 조성 교역 총력

김 지사는 새해에 전북도를 ‘대한민국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조성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를 추진해 전북도를 대중국 교역의 땅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새해에 전북도를 ‘대한민국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조성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를 추진해 전북도를 대중국 교역의 땅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식품 클러스터 연계 한식세계화

김 지사는 지난해 주요 이슈가 된 LH 이전문제에 대해 “정부가 우선 일괄배치를 할 것인지, 분산배치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분산배치로 결정된다면 전북에 시장을 포함한 본사를 두고 필수 인력 24.2%를 주고, 나머지 76%가량의 직원을 영남에 주는 분산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협정읍시지부, 시민재단에 장학금 1억5천만원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는 최근 정읍시민재단에 장학금 1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의 일반회계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 정읍시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총 16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구제역 축산농가 확산방지

순창수렵장 운영 일시 중단

순창군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렵장 운영을 구제역 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한다. 순창군은 당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통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전북 중기센터’ 명칭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전북도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이 3일부터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게 된다. 전북도는 전북중기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센터의 이름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 쌀 경쟁력제고에 392억 투입

도, 농공 등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까지 확대

전북도가 올해 지역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벌여온 쌀 경쟁력 제고사업(172억원)을 비롯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180억원), 식품원료 인프라 구축사업(40억원) 등에 사업비 39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총 6000ha에 ▲1년생 작물 3750ha ▲조식작물 1500ha ▲다년생 작물 750ha를 심을 계획이다. 또한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 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31개소에 비해배면적 620ha를 타작목으로 전환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올리게 된다.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 45개 세부사업에 1369억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무인헬기(16대)·광역살포기(29대) 등 병해충 공동방제 장비를 도입하고, 노동 투자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육묘장 11만7480㎡를 지원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6급이상 공무원들이 지난 1일 군청앞 오거리에서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은 매년 새해 첫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길거리 새해인사를 실시했다.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공모 선정

국비 9억 지원...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1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관광특구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돼 국비 9억원을 지원받는다. 2일 전북도와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는 전국 27개 관광특구중 9개 특구만 선정하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5개소만 선정됐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인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 발전역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연차교과금 신청을 연

결하는 ‘내장산 가는 길’ 개설과 신교 확장,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 등에 14억원을 투자하고 내장산 단풍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4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지역이 단풍철에만 관중되는 추세를 탈피하고 사계절 체류하는 관광명소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관광중심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안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만원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 4,000평
•건물 : 650평
•전 : 9,500평
•합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 옆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화정동 대주피오레
66형 미입주 물건 디량보유
전세대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앙공원 4개월 경관 및 아파트 단지 외 연결된 공원 산책로..